

# “기본사회·RE100·농업대전환... 더 큰 영암 완성”

### 민선 8기 변화·혁신 기반 주민 삶 속 체감 노력 서남권 산업·에너지·관광 거점도시 육성 박차 농촌기본소득·통합돌봄 기본사회 실현 등 집중

#### 우승희 영암군수

-민선 8기에 이어 다시 영암군정을 맡게 된 소감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선 8기에서 시작한 변화와 혁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완성하라는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월출페이, 누구나버스, 통합돌봄, 미래교육재단, 천사펀드, 에너지자립마을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며 영암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 왔다. 또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유치로 통해 영암의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도 차근차근 다져왔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이 체감해야 할 변화와 성과는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민선 9기는 새로운 구호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를 주민의 삶 속에서 완성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은 기본사회 실현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농업 대전환,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시대 대응을 중심으로 영암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문화와 복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지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이번 선거 결과가 특정한 공약, 선거

운동의 결과라기보다, 지난 4년 동안 영암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성과를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것도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영암의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한다. 군민들께서는 지난 4년의 성과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암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다고 본다. 기본사회와 RE100 산업단지, 농업 대전환,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시대 대응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가 이번 선택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과를 지지의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 큰 책임과 더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과 함께 영암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민선 9기 과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선 8기가 변화와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변화를 주민의 삶 속에서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선 9기 4년간 기본사회 실현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농업 대전환,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시대 대응을 중심으로 영암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출페이, 누구나버스, 통합돌봄, 미래교육재단, 천사펀드, 에너지자립마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선 9기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더욱 높일 것이다.

특히 영암형 농촌기본소득과 RE100 산업단지, 농업 대전환은 민선 9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기본사회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고, 에너지와 산업, 농업의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 행정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장 중

심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참여 행정을 확대하겠다. 또 정책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 평가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만들어 가겠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출범은 영암에 큰 변화이자 새로운 기회다. 통합특례시 시대를 영암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행정체계의 변화에 무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 교육과 문화, 교통과 경제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특례시 시대에도 영암은 산업과 에너

지, 관광과 농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과 RE100 산업단지, 해상풍력과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광주의 인구와 자본, 교육·문화 인프라와 연계해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이 찾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교통망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광주~강진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광주·나주·영암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등 광역 교통체계 확충에 적극 대응해 영암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관광과 생활권 전략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통합특례시 출범으로 영암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7~2028 영암 방문의 해를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민선 9기는 전남광주통합특례시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영암의 강점을 더욱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영암이 서남권 산업·에너지·관광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꼽자면 영암형 기본사회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9기의 목표는 평범한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영암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통합돌봄, 미래교육, 군민주치의 정책 등을 더욱 발전시켜 주민 삶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 특히 농촌기본소득은 주민의 삶을 지키

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정부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과 연계해 영암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대불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의 미래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를 민선 9기 공약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첫 성과를 만들어 내는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 말보다 실행, 계획보다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과를 영광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보답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

앞으로 민선 9기는 새로운 구호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소득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농업과 지역경제, 문화와 관광 등 주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지금 영암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출범, 에너지 대전환, RE100 산업단지, 농업 대전환 등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기회를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우승희 영암군수가 농촌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고충과 요구사항 등을 경청했다.



영암군은 지난 1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민선 9기 영암군정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열린 제18회 세계여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우승희 영암군수

####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총캠페인

##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